

우즈 4개 대회 연속 우승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 정상 을 다승(6승)·상금왕 확실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우승 상금 130만 달러가 걸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마저 제패, 4개 대회 연속 우승의 진기록을 세웠다.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골프장(파70·7천360야드)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270타로 스튜어트 싱크(미국)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네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싱크를 제쳤다.

이로써 우즈는 브리티시오픈, 뷰익오픈, 그리고 PGA챔피언십에 이어 최근 출전한 네 차례 대회에서 빠짐없이 우승컵을 쟁겨 ‘황제’의 위용을 과시했다.

또 1999년~2001년 3연패,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해 이 대회에서 무려 다섯 차례나 우승하면서 파이어스톤골프장과 ‘월뿔국합’임을 입증했다.

우즈는 메이저대회를 능가하는 상금 규모를 자랑하는 WGC 대회에서만 11승을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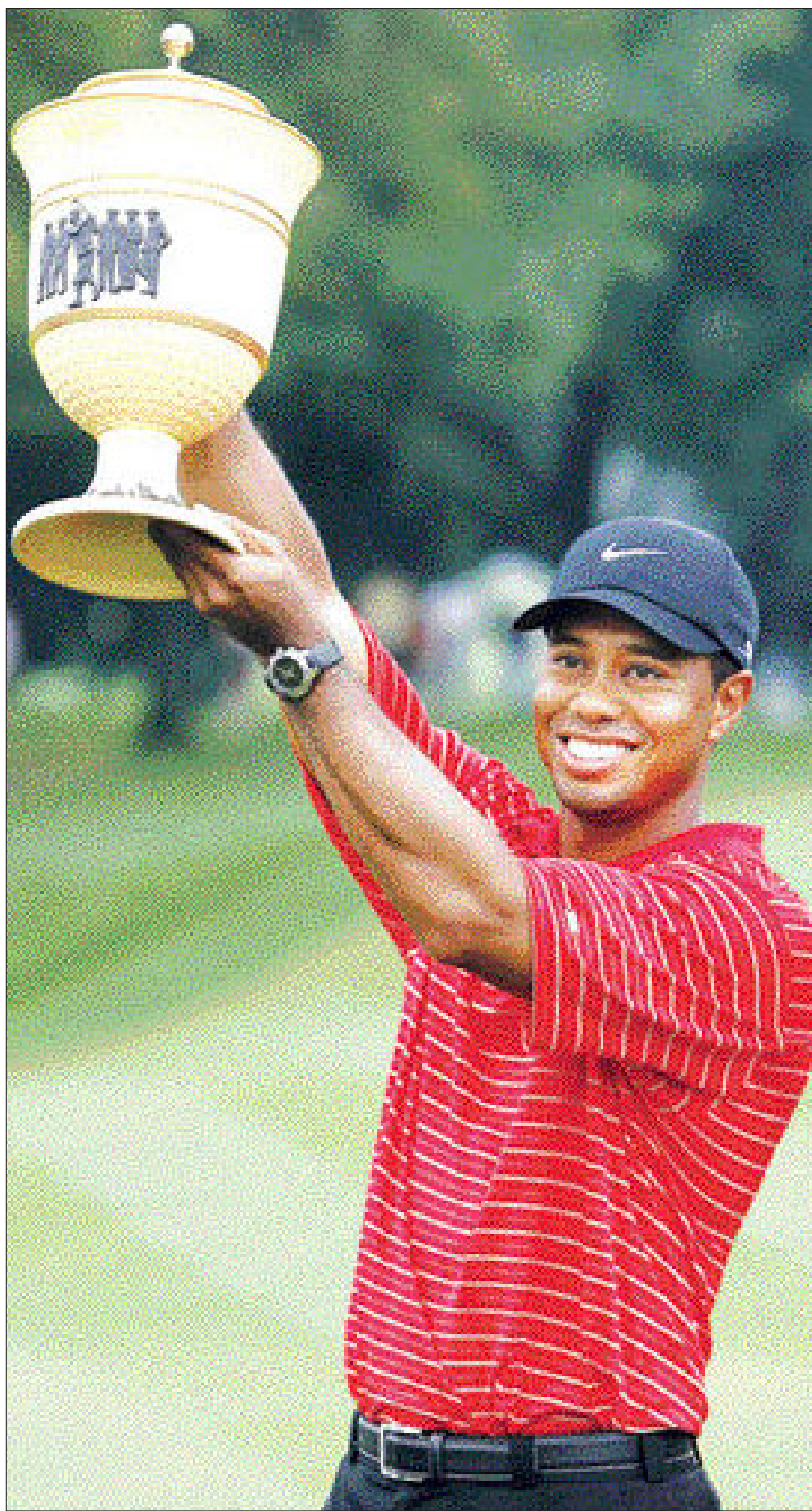
특히 우즈는 투어 데뷔 10주년을 맞아 치른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기쁨이 더 컸다. 꼭 10년 전인 지난 1996년 8월28일 프로로 전향한 우즈는 이번 우승으로 통산 52승으로 바이런 넬슨과 함께 통산 다승 공동 5위에 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우즈보다 승수가 앞선 선수는 샘 스니드(82승), 잭 니클로스(73승), 벤 호건(64승), 그리고 아놀드 파머(62승) 뿐이다.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시즌 6승을 올린 우즈는 다승왕을 예약했고 시즌 상금은 765만1천563 달러로 늘어나 2위 짐 퓨릭(미국·518만4천16달러)을 200만 달러가 넘는 큰 격차로 따돌려 상금왕도 사실상 확정짓다시피 했다.

싱크와 연장전에서 우즈는 첫 번째 홀과 두번째 홀을 파로 비긴 뒤 세 번째 홀에서는 벅커샷에 이어 퍼퍼트를 놓쳐 위기에 몰렸지만 싱크가 3퍼트 보기를 범한 덕에 기사회 생겼고 네 번째 홀에서 2m 버디를 잡아내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29일 귀국하는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버디 4개에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를



28일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뒤에 1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1오버파 281타로 공동 22위를 차지했다. 6만8천 달러라는 적지 않은 상금을 받은

최경주는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31일부터 열리는 한국프로골프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지영, 이글도 했는데 ...

오초아에 3타 뒤진채

아쉽게 준우승 그쳐

LPGA 웬디스챔피언십 최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선수 시즌 10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장타자’ 이지영(21·하이마트)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이지영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타탄필드골프장(파72·6천51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웬디스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며 분전했지만 7타를 줄인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따라 잡지 못했다.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대회 최스타 기록이던 269타를 뛰어넘으며 제 기량을 100% 발휘한 이지영으로서는 24언더파 264타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낸 오초아의 활약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오초아에게 2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지영은 8번홀까지 3타를 줄였지만 역시 3개의 버디를 뽑아낸 오초아와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정교한 아이언샷에 컴퓨터 퍼팅을 앞세운 오초아에 밀리는 듯 하던 이지영은 9번홀(파5)에서 환상적인 이글을 잡아내며 추격에 불을 지켰으나 16번홀 보기로 스테이시 프라마나수드(미국)에게 공동 준우승마저 내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희영 시즌 2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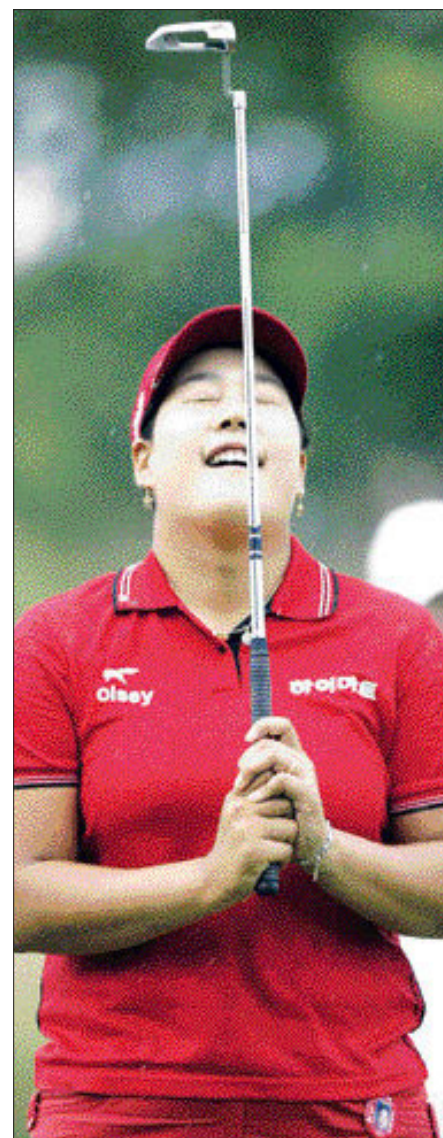
KLPGA 레이크힐스클래식 최종

박희영(19·이수건설)이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올 시즌 여자프로골프에서 두번째 우승 트로피를 높이 쳐들었다.

박희영은 28일 제주 서귀포의 레이크힐스골프장(파72·6천392야드)에서 열린 레이

크힐스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선두 유지연(19·하이마트)에 4타를 뒤진 채 시작했으나 4언더파 68타를 쳐며 역전에 성공, 합계 4언더파 212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첫 대회 휘닉스파크클래식에 이어 두번째 우승.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눈앞에 뒀던 신인 유지연은 막판에 결정적인 실수로 무너지며 2언더파 214타로 한희원(28·힐라코리아), 문현희(23·힐라코리아)와 함께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지영이 28일 열린 LPGA 웬디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11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놓친 뒤 아쉬워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호랑이, 독수리 잡고 4위 굳힌다

■ 금주의 프로야구

KIA, 한화·SK 상대 총력전

송진우 200승 축포여부도 관심



〈29일 기아 선발 전병두〉



〈29일 한화 선발 송진우〉

◇프로야구 중간순위 (28일현재)

| 순위 | 팀 | 승 | 패 | 무 | 승률 | 게임차 | 연속 |
|----|-----|----|----|---|-------|------|----|
| 1 | 삼성 | 60 | 35 | 3 | 0.632 | - | 1승 |
| 2 | 현대 | 54 | 45 | 1 | 0.545 | 8.0 | 1패 |
| 3 | 한화 | 52 | 44 | 2 | 0.542 | 8.5 | 1패 |
| 4 | KIA | 47 | 46 | 3 | 0.505 | 12.0 | 1승 |
| 5 | S K | 50 | 53 | 1 | 0.485 | 13.5 | 1승 |
| 6 | 두산 | 45 | 48 | 2 | 0.484 | 13.5 | 2승 |
| 7 | 롯데 | 36 | 53 | 2 | 0.404 | 20.5 | 1패 |
| 8 | L G | 39 | 59 | 4 | 0.398 | 22.0 | 1패 |

장 좌완'의 대결로 압축된다.

KIA는 이날 '좌완 특급' 전병두(22)를 출격시키고 한화는 '베테랑 좌완' 송진우(40)를 앞세운다.

한화는 송진우의 승리를 장담하듯 광주 구장에서 200승 축포를 쏠 수 있도록 요청했고 KIA도 프로야구 발전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상태.

하지만 송진우의 200승 축포가 광주 구장에서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송진우는 최근 4경기 연속 승수를 챙기지 못한 정도로 극심한 제구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다.

서정환 KIA감독도 "송진우의 구위가 좋지 않아 29일은 좋은 승부가 예상된다"면서 "이번 주 한화전은 4강행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승부처인 만큼 필승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KIA는 주중 한화전이 끝나면 주말(9월 1일~3일)엔 문학구장으로 옮겨 SK와 3연전을 펼치게 된다. KIA에게 SK는 다소 손쉬운 상대로 꼽힌다.

우선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14경기중 9

승(5패)을 챙겼고 상대 팀 타율은 7개 구단중 0.267로 가장 높다. 출루율도 0.348에 이를 정도로 유독 SK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SK전에서도 2연승을 챙겼다. 특히 SK는 현재 3할대 타자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타격감도 떨어져 KIA로선 이리저러도 편만한 상대다.

여기에 한 선발 로테이션이라면 이번 SK전에 '특급 에이스' 그레이싱어(31·KIA)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여 주말 3연전은 다소 편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A가 송진우의 200승 달성을 저지하고 SK를 넘어 안정적인 4위 자리를 확보할 지 기대되는 한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선착순 학생 300명에 티셔츠

프로야구 KIA는 29일부터 31일까지 펼쳐지는 한화 3연전에서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학 이벤트 'Back to School Day'를 연다.

KIA는 이벤트 기간동안 선착순으로 학생 300명에게 기념 티셔츠를 증정한다.

티셔츠는 경기장내 타이거즈샵에서 학생증 제시 후 수령이 가능하다.

또 별도로 학생 100명에게 빙고카드를 주고 당첨된 2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도너츠 상품권을 나눠준다. 이밖에 '응원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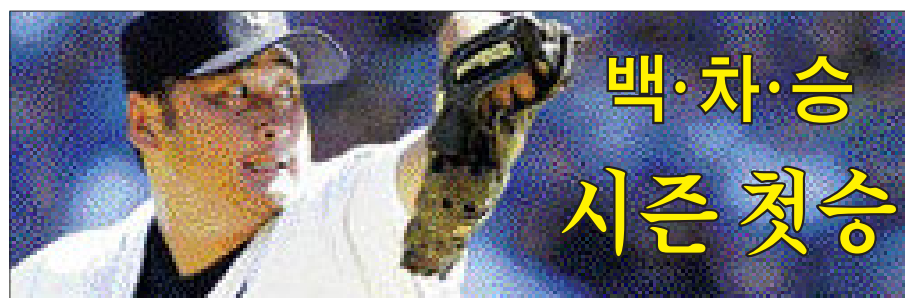
29~31일 한화 3연전에서

'응원 장학생' 선발·쌀 전달

섯 포(1포 20kg)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KIA는 지난 26일 광주 현대전서 구단 지정병원인 '미르치과의 날' 행사를 갖고 직원 및 가족 200명과 함께 올 시즌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보스턴 레드삭스전 5.20닝 3실점 후투

백차승(26·시애틀 매리너스)이 바리코 북귀 두번째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이자 바리코 3승째를 낚는 기쁨을 누렸다.

백차승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시애틀 세이프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와 5.20닝 동안 홈런 2개와 볼넷 5개를 허용했지만 삼진 4개를 잡아내며 3실점(2자책)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백차승은 5회까지 실책으로 1실점했지만 안타를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호투를 펼쳤다.

하지만 6-1로 앞선 6회초 1사에서 강타자 데이비드 오티스에게 오른쪽 담을 넘는 1점 홈런을 내쳤고, 마이클 로웰에게 다시 좌월 솔로포를 맞고 아쉽게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백차승은 1회 볼넷 2개를 내줘 불안한 출

발을 보였으나 무실점으로 막았고 4회까지 갈끔한 투구를 이어갔다.

그러나 5회에 볼넷 2개로 위기를 자초한 뒤 삼진 2개를 연달아 잡았지만 팔방에 1루수 벤 브로사드가 송구 실책을 범해 1점을 내줬다. 평균자책점은 4.22를 기록했다.

투구수는 107개, 스트라이크는 69개였으며 최고구속은 148Km.

시애틀은 백차승이 물러난 뒤 3명의 투수가 나와 점수를 지키며 6-3으로 승리했다. 한편 키 193cm, 몸무게 100kg의 우람한 덩치인 백차승은 부상고를 졸업하고 1998년 계약금 129만달러를 받고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했다.

1999년부터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는데 2002년을 제외한 마이너리그 7시즌 동안 45승 25패를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우천리그' 확정

포스트시즌 진출팀을 가르는 프로야구 막판 레이아웃 '우천리그'의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 비로 연기된 정규 시즌 잔여 84경기 일정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일까지 27일 동안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 8개 팀이 함께 시즌을 끝낼 수 있도록 편성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2년 만에 부활한 더블헤더. 3연전은 이틀, 4연전은 사흘에 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도입됐다.

이번 우천리그에서도 우천으로 경기가 순연되면 주중 경기는 다음 날 더블헤더 또는 예비일에 치르고 주말 경기이면 다음 날 더블헤더나 월요일, 또는 예비일에 배정된다. 더블헤더는 주중과 토요일은 오후 3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는 팀은 롯데(28경기)이고 두산(24경기), KIA(23경기), 삼성, 한화(이상 21경기), 현대(19경기), LG(17경기), SK(15경기)가 뒤를 이었다.

한편 롯데는 4강 접전을 치르고 있는 4위 KIA와 6경기, 6위 두산과 7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막판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